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대학생 장학금 확대

관내 주소지 둔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해당 학기 당 1인 1백만원, 연간 총 2백만원 지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이 대학생 장학금 확대 방침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은 최근 열린 이사회를 통해 2020학년도 2년제 이상 대학 진학 신입생들(2019년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3년생)부터 학기 당 1인 1백만 원, 연간 총 2백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2023년도부터는 무주출신 대학생 전원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애 하나 대학 보내자면

부담이 정말 큰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다"라며 "좋은 일인 만큼 무주군장학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봐서 마음을 보태야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장학금 확대지원 사업 시작을 위한 추정예산은 약 3억 1천여만 원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후원자(관내 공무원,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관계자, 주민, 출향인 등) 발굴(문의 063-350-2256)노력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주홍규 과장은 "4년제 대학에 진학하면 4년간 총 8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장학혜택이 관

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2020년도 초·중·고등 장학금 지급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무주군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전원에게 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현재 성적을 기준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던 장학금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9년 설립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79억여 원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849명에게 7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2013년~ 무주도전골든벨 포함)했으며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2013년~ 13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문농업 인재양성... 진안환경농업대학 입학식

사과, 수박, 발효식품 3개 과정 오는 11월까지 교육

진안농업 발전에 앞장 설 전문농업 인재양성의 요람인 진안환경농업대학 입학식이 지난 5일 교육생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은 기념식, 교육과정 소개, 과정별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환경농업대학 부학장인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진안 농업의 발

전을 이끌어갈 교육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하고 교육만이 우리 농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친환경농업의 중요성과 꿈이 있는 진안 농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격려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진안환경농업대학은 탄탄한 기초부터 교육과 함께 농장 현장 컨설팅에 큰 비중을 두고 농업인들이 바로 접목 가능한

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과, 수박, 발효식품 등 3개 과정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과정별 6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진안환경농업대학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89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문 이론 교육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현장학습을 통한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 실천으로 농가소득과 진안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축산분야 관계기관 간담회

장수군은 지난 5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수, 무진장축협 송재근 조합장, 장계농협 박정용 조합장, 장수한우지방공사 김홍기 사장, 한우협회 장수군지부 채수권지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7기 축산분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각종 FTA 체결 등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관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장수군은 지난 5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축산분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장수군은 장수한우 유통 브랜드 통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및 가축분뇨 처리 관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반디파머스 블루베리 잼' 첫 선

무주군 농산물가공센터서 550병 생산
잼·즙·주스로 제조 영역 확대 방침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건립 2년 만에 첫 제품을 생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첫 선을 보인 '무주 반디파머스 블루베리 잼'은 반디파머스영농조합법인 오경순 대표와 배영숙 이사가 농사지는 블루베리(100kg)를 원료로 한 것으로 총 550병(1병 200g)을 생산했으며 판매는 조합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순 대표는 "블루베리 잼 생산을 시작으로 가공센터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잼, 즙, 주스로 생산될 반디파머스 제품이 농가들에게는 든든한 소득원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성)에서 진행하는 농식품창업교육(기초반, 심화반)을 이수하고 유통판매법인인 반디파머스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한 무주군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곳으로,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95㎡ 규모로 조성됐으며 습식가공실과 건식가공실에 49종의 기계 설비를 갖추고 있어 사과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딸기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잼, 즙 등 생산이 가능하다.

무주군 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 2017년 3월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뚫은 이래로 지금까지 시설건축과 장비구축, 시제품 연구개발, 제조가공업 신고 및 유통전문판매 신고를 위한 반디파머스영농조합법인 출범 등의 절차를 밟아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품목 제조보고를 완료한 반디파머스라는 브랜드(9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의 사과즙과 사과잼, 블루베리 잼, 아로니아 잼, 딸기 잼 등 5개 품목과 사과즙 50봉/박스용의 물류 바코드를 포함해 총 6개를 유통표준코드(GTIN-13)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한 바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현재는 사과와 딸기만 가공이 가능하지만 신제품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며 "HACCP 인증 취득(9월 목표)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이어서 반디파머스 제품이 맛도 좋지만 위생적으로 안전한 가공품이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산물 가공,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용 및 관련 교육홍보, 그리고 가공창업 코칭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최성용 진안부군수

교량·체육시설 안전점검

최성용 진안군부군수는 지난 5일 노후교량과 체육시설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안전 확보에 나섰다.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진안군도 최성용 부군수를 주축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으며 이번 점검은 교량의 배수 시설, 교대·교각의 균열 부위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 체육시설인 문체체육회관의 결함발생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진안군은 현재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물 238개소 중 217개소에 대해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오는 19일까지 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군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관내 위험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안전관리상태, 규정 이행 사항 등을 면밀하게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 발견 시 즉시 시정 조치해 달라"며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산서면 지방재정 확충

명예위원 제도 시행

장수군 산서면(면장 이근동)은 지난 5일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명예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 명예위원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 개선과 체납액 제로시대 구현을 통한 지방자주재원 안정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수 사책으로, 산서면은 이날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관내 마을이장 34명을 지방재정 확충 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12월까지 신규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및 기타 면정 발전방안을 발굴해 나가기 된다.

김강수 부면장은 "이번 제도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체납액 정리에 있어 획기적 성과를 거양하여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홍보

장수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장수군의 대표 축제인 제13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와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물 등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해 '여행(夜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만여명 이상의 방문객이 관람했으며, 군은 오는 9월 6일부터 8일 3일간 열리는 '제13회 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와 사과즙, 사과칩, 오미자청 등 농특산물 시식행사, SNS 이벤트 등을 실시해 눈길을 끌

었다. 또 대표 관광지인 논개사당, 뜬봉샘 생태관광지, 대곡관광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등의 관광코스를 전북 투어패스카드와 연계하여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류지봉 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육성축제인 장수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에게 적극 어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장수군을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